

2017. 5. 4. (목) 언론보도

매일경제

2017년 05월 04일 (목)
22면 전국

명물된 임진강 전망다리 스카이워크

개장 2개월만에 3만명 발길

국방부 허가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비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유료 개장한 이후 2개월 동안 3만55명이 다녀갔다. 하루 평균 567명이 다녀간 셈인데 이 추세라면 연간 4억~5억원의 매출도가 가능하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해 만들었다. 원래 파주시 문산읍 윤천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 노선이었던 독개다리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됐다. 1953

년 휴전협정으로 임시 복구해 국군 포로 1만2733명이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내일의 기적소리란 명칭은 고은 시인이 직접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특히 내일의 기적소리는 기존에 남아 있던 교각 5개를 활용해 전쟁 이전 당시 철교 형태를 재현했다.

관람객은 재현한 증기기관차 객차, 철로 구간, 매직글라스, 전망대 등으로 구성된 구간을 직접 걸으며 총탄 자국 등 역사적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400-5 일대 임진각 관광지 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요금은 성인 2000원, 소인 1000원이다.

지흥구 기자

11.9 X 9.1 cm

충부일보

2017년 05월 04일 (목)
018면 종합

민통선 스카이워크 2개월만에 3만명 방문

3만55명... 하루 567명 다녀가 10명 중 7명 방문 만족 표시

경기도가 조성한 파주 민통선 내 관광시설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운영 후 두달만에 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67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셈으로 방문객의 88%가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로 꼽았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 출입(허가)절차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내일의 기적소리가 지난 3월 1일 유료화 운영된 이후 2개월동안 3만55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2개월 간 매출액은 5천662만8

천 원으로 연간 4억~5억여 원 규모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의 기적소리를 찾은 방문객 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만족 30%, 만족 37%, 보통 25%로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가 88%로 향후 방문객 증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관광시설로 조성된 내일의 기적소리에서는 증기기관차 객차재현, 철로구간, 매직글라스, 전망대 등으로 구성된 구간을 도보로 직접 걸어보고 6·25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교각의 총탄자국을 확인 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

조윤성기자

11.3 X 10.0 cm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명소화 유료화 2개월 만에 3만명 찾아

〈파주 문산을〉

국방부 출입 허가 절차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파주시 문산을 마정리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유료화 2개월 만에 3만 명의 방문객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내일의 기적소리가 지난 3월 1일부터 유료개장을 한 이후 3만 5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일 평균 567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2개월간 매출액도 5천662만 8천 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매출액은 매년 4억~5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임진강 관광지의 경우 월별, 주말, 행사, 날씨 등에 따라 관광객 수 편차가 커

2개월 운영결과로 정확한 연간 매출액을 도출하기 어렵지만,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아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의 기적소리가 이처럼 DMZ 일대의 새로운 효자상품으로 각광받는 것은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해 임진각 관광지의 볼거리·즐길 거리로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독개다리 복원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교각 안전진단 및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를 추진했고 지난해 5월에 착

공, 같은 해 11월 준공했다.

이후 독개다리는 지난해 12월 현판 제막식을 하면서 내일의 기적소리로 개장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일부터 유료화됐다.

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내일의 기적소리는 DMZ 일대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 등의 가치를 융합한 복합형 관광콘텐츠"라며 "앞으로 많은 이가 이곳에서 DMZ의 경관을 감상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의 기적소리라는 명칭은 고은 시인이 직접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만든 이름이다. 정일형기자

17.2 X 9.5 cm

민통선 걸어보자 3만여 명 발걸음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유료화 운영 두달째 방문객 줄이어 67% 만족·88% 재방문 의사

국방부의 출입허가 절차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 '내일의 기적소리'가 유료 운영 2개월 만에 방문객 3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의 방문객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총 3만 55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또 내일의 기적소리를 찾은 방문객(4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만족 30

%, 만족 37%, 보통 25%로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응답자가 88%나 돼 향후 방문객이 증가할 전망이다.

독개다리는 파주시 문산을 운전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 노선으로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됐었다. 이후 1953년 휴전협정 조인으로 일부를 임시 복구해 국군포로 1만 2천 733명이 귀환하는 등 한국 분단사의 비극과 아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 임진각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 통일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했다. 기존에 남아 있던 5개의 교각을 활용해 전쟁 이전 당시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내일의 기적소리는 DMZ 일원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 등의 가치를 융합한 복합형 관광콘텐츠"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DMZ의 경관을 감상함은 물론 통일을 염원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임진각관광지(파주시 문산을 마정리 1400-5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031-956-83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4.9 X 10.5 cm

‘내일의 기적소리’ 유료운영 두달만에 방문객 3만명 돌파

국방부의 허가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 ‘내일의 기적소리’가 유료화 운영 후 2개월 만에 방문객 3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유료개장을 실시한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의 2개월간 방문객이 3만55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연 매출액은 연 4~5억 원으로 추정된다.

도가 내일의 기적소리를 찾은 방문객(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매우만족 30%, 만족 37%, 보통 25%)는 응답을 보임에 따라 도는 향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임진각 관광지내(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400-5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031-956-8331)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27yw@

5.7 X 12.3 cm